

경제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(5.8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.
 -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-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, 트럼프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습니다.
 - 대내적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.
- 저를 포함한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
 -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, 통상, 일자리,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 - 특히,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
 -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·보완하겠습니다.

[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]

- 오늘은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.
 - 전체 추경예산(13.8조원) 중 12조원*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% 수준으로 집행하겠습니다.

* 예비비(1.4조), 지방채 인수(0.2조), 국고채 이자 상환(0.2조) 등 제외

□ 먼저,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- 특히, 중대본 피해복구계획(5.2. 의결)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5월 내에 전액 교부합니다.

* (행안부) 재난지원금, 시설복구 등 4,500억원 (환경부)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1,120억원

- 피해주민의 주택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(400호, 244억원)도 주민 신청시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조속히 지급하겠습니다.
-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8월중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(6대, 968억원).

□ 다음으로,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지원에 바로 착수합니다.

- ‘관세 대응 바우처’ 등 수출바우처(1,786억원)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하여 6월에 지급하겠습니다.
 - ‘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’(산은, 1,000억원 출자)도 5월중 출시하여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
- 용인·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(626억원)도 신속한 사업계획 검토·승인을 통해 7월부터 집행하겠습니다.
- 국내 AI 생태계 혁신 지원을 위해 5월부터 고성능 GPU 확보(1.7조원) 사업자를 공모하고, 7월까지 World Best LLM 프로젝트(500억원) 정예팀도 선정합니다.

□ 끝으로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,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.

- 소상공인이 공과금,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‘부담경감 크레딧’(약 1.6조원)을 7월부터 지급하여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‘상생페이백’*(1.4조원)과 ‘지역사랑상품권’ 할인 지원 보조금(4천억원)도 신속히 교부하겠습니다.

* '24년 월평균 대비 월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

- 철도(2,125억원) 및 도로(931억원)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리츠 출자(1,500억원)도 7월중 70% 이상 집행하겠습니다.

- 정부는 향후 3개월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